

2010.1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0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0.12.21	대전MBC 대회의실	8/11	7	

- 시청자위원 불참자(3명) 명단: 여운철, 유치벽, 김재영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사업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서영석 보도국장, 김경환 기술국장, 이상헌 전략기획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3	4	-	2	9	-	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5	4	-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3건	3건	
교양	<세잎클로버>의 일반인 원정대가 지역에 대해 잘 몰라 보여 밀착성이 필요함	12월 방송분부터 원정대가 사전에 지역에 대해 알아가는 모습도 방송에 반영 중임	'10.11월
기타	최대 이슈인 입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입시설명회 개최 요구	자사 후원의 형태로 12월 중에 2차례 입시설명회를 개최함	'10.11월
기타	주말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 속보를 볼 수 있게끔 조치 요구	홈페이지 전반적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12월 16일자로 시행함	'10.1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기타	지난 1년간 제작진의 노고를 격려한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장인순 위원)	2011년에도 지역과 밀착된 방송으로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참고
기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잇단 수상 소식에 기쁘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극복. 해결하고 새해 맞길 바란다. (안정선 위원)	국내.외 우수 언론인상을 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새해에도 지역 시청자와 소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견참고
교양	<시사분석>에서 패널들이 준비해 온 자료가 제대로 시청자들에게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 화면에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한 뒤 클로즈업 등의 조치를 해 달라. (방기봉 위원)	도표나 자료 등이 현재보다 더욱 잘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프로듀서와 기술국 카메라 감독이 충분히 협의해 개선하겠습니다.	수용
보도	뉴스의 컬러감이 흐릿하고 뉴스데스크 세트 뒷배경이 깔끔하지 못하고 복잡해 보인다. (김진국 위원)	현재 뉴스 세트가 8년 이상 사용 중인 만큼 2011년 봄 개편 때 대대적인 수정,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용
보도	보도의 비판적 기능은 존중하지만 공정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뉴스에서 치우침이 느껴진다. 비판의 대상에게도 의견 표출의 기회를 꼭 줘야 한다. (신현대 위원)	상대의 반론권 부여를 충분히 해 편향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교양	서해안 원유 유출사고 3주년을 맞아 마련된 특집 다큐 <잊혀진 재앙>과 <시사플러스> 시의적절 했고, 의미 있었다. (김경숙 위원)	<잊혀진 재앙>과 <시사플러스> 모두 향후에도 보상과 환경오염 등 원유 유출사고 후유증 문제를 취재해 지역에 알릴 계획입니다.	의견참고
보도	행정사무감사 보도의 필요성을 연초 제기했는데 이번에 대전 3건, 충남 4건이 보도돼 좋았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보도해 주길 바란다. (김경숙 위원)	지방의회 내부 마찰은 보도는 하되 정략적인 측면을 우려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는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수용
교양	<시사플러스> '청년실업, 비상구는 없나?'는 대학생 학부모로서 매우 공감되고 좋았다. (김영옥 위원)	<시사플러스> 뿐 아니라 취업박람회 개최 등 청년 실업의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참고
보도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진행상황 지켜보고 점점 필요하다. 세종시 백서 형태의 다큐를 기획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김영광 위원)	2011년 기획보도로 매주 한차례 세종시 건설 현황을 보도 중이며 중.장기적 다큐도 계획 중입니다.	수용